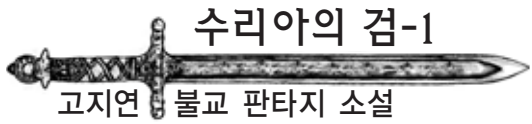


이 몸은 나가는 방법을 찾아봐야 겠어... 실패하더라도



암흑속의 두 소년④

두 사람 사이에는 또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할 말을 찾지 못한 무니는 칼기처럼 바닥에 드러누웠다. 그리고 '이대로 어쩔 수 없는 것인 지도 모르겠다' 라는 체념과 '그래도 나가야 한다' 라는 생각 사이에서 고민했다. 서서히 눈이 감겨왔다.

"난 그래도 여기서 나갈 거야..."

잠들기 전, 무니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믐날 밤은 이미 다 지나갔다. 저 아득한 아래에서는 태양이 머리를 들이밀고 있었고, 명상을 멈춘 루드라는 테드모가 가지고 온 물건을 찬찬히 관찰하는 중이었다. 그가 공중에 띄운 채 살펴보고 있던 그 물체는 얼핏 구슬 같아 보였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주 희미하게 빛을 반사하는 돌 조각 같기도 하였다. 그러나 루드라의 세 번째 눈동자에 비친 그것의 모습은 달랐다. 아주 눈부신 광채를 내뿜는 하나의 빛 덩어리였다. 그 빛 때문에 형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의 목에 감겨있던 뱀도 그 눈부심 때문인지 아예 눈을 감아버린 모습이었다.

그렇게 그 빛 덩어리에 대한 고요하면서도 깊은 관찰은 태양이 아래 세상에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계속 되었다. 이윽고 루드라의 세 번째 눈이 감겼다. 그와 동시에 공중에 떠 있던 그 물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잠시 후, 루드라는 조용히 테드모라는 이름을 속삭였다. 그러자 허공을 떠다니던 먼지들이 소용돌이치며 마치 자석처럼 어딘가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먼지의 소용돌이가 조금씩 잦아들며 멈춘 자리에는 어느 새 테드모가 서 있었다.

"네 말대로 그것은 인간의 세계에서 온 물건이 아니더구나." 테드모는 한 쪽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직접 내게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지?" "손에 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손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나?"

"그 물체가 소년의 몸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그 소년에게서 그 걸 찾아냈을 때부터 말입니다. 마치 그 물체 자체에 의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짧은 침묵이 흐른 뒤, 테드모가 계속 이야기 했다.

"아마 그 아이가 눈의 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물체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건, 아마도 그 물체에 인간의 힘을 뛰어넘은 어떤 주님이 격려 있거나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 아닐까 짐작 되었습니까."

루드라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네가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인간은 물론, 하급 신 정도의 능력은 뛰어넘는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겠군. 네가 기억에 담아 온 형상만으로 거기까지 짐작하는 어려웠는데 말이지. 어쩌면 좀 더 알아봐야겠어. 크리슈나 쪽도 살펴보는 게 좋겠지."

그 말에 테드모의 눈썹이 긴장한 듯 살짝 치켜 올라가자, 루드라는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네게 그 임무를 맡기지는 않을 테니, 괜히 굳을 필요 없네. 그나저나 여전히 그들에 대한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있군. 하긴 네겐 원한 역시 힘의 원동력이니, 어쩌면 풀리지 않는 것이 나올 지도 모르지. 테드모, 내게 너의 악은 굉장히 중한 것이다. 그것은 내 본연의 역할과도 상관이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창조주 크리슈나에게 너는 파괴하는 도구 이상은 아니야. 그들의 입장에서 당연한 이치지."

고개를 숙인 테드모의 표정에서 아까의 변화는 사라졌다. 루드라는 그런 테드모를 잠시 응시하다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런 물건을 고작 그런 인간의 꼬마 따위가 가지고 있다니, 어쩌면 영문일까.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얼음의 성에 또 다른 인간 아이와 방치해놓은 상태입니다."

"흠. 그 또 다른 소년의 이름은 뭐라고 하겠지?"

테드모가 "칼기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래, 칼기... 이름이 맘에 드는 소년이었어."

고개를 끄덕이던 루드라가 테드모에게 물었다.

"그 아인 아직 어떤가? 인간의 시간으로 하더라도 몇 달쯤 갇혀있었을 텐데 말이야."

"네, 별 다른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눈의 산에서 발견한 소년을 데리고 감옥에 갇던 부하의 보고로는 말입니다."

루드라는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감포가 실망하겠군. 나는 사실 감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네가 건의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에게 인간계의 벌을 내리는데 그쳤겠지. 하여간 두 소년이 지금 함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테드모의 대답에 루드라는 눈의 산 쪽을 바라봤다.

"흠. 그럼 오랜만에 얼음의 성에 한 번 가볼까?"

테드모는 신의 그 말에 놀랐는지 숨을 크게 한번 들이키더니, 부분만 내리시라는 듯 고개를 숙였다.

루드라가 눈의 산으로 내려갔던 건 테드모가 그를 모신 이래로 세 번째 있는 일이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께져, 암흑과 침묵 속에서 밤의 나머지 시간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 또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든 무니의 얼굴은 아까의 그 민들레 모두 날려 보낸 듯 평화로우 보이기까지 했다. 얼음의 감옥에서 유일한 다행인 것은 하루든 이틀이든 내키는 대로 잠을 자도 몸에 아무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영원을 살아야 하는 죄수들에게 이 잠은, 끝없는 시간과 삶이라는 감옥에서 잠시나마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순간 무니의 잠은 그것에서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모



삽화 · 김용인

힘으로 소년은 매우 지쳐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휴식이었다.

날이 밝아왔다. 무니보다 먼저 일어난 칼기는 방에서 하나 뿐인 조그만 창으로 목을 뺀 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끝없는 하늘과 그 하늘을 닮은 빛깔의 물 뿐이었다. 그러나 칼기는 그 지루할 정도로 적막한 풍경을 일 초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계속해서 바라봤다. 마치 무엇을 기다리는 것도 같았다. 그때, 무니가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졌다.

"일어나셨구나."

목을 창문 밖으로 향한 채로, 칼기가 말했다. 무니는 눈을 비비며 그런 칼기의 우스꽝스러운 뒷모습을 쳐다봤다. 그가 이 방의 유일한 가구인 탁자 위에 자신의 배, 그리고 그 위에 무니의 배까지 위태롭게 쌓아놓고 무릎을 꿇은 채 밖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니는 멍하니 있다가 방을 천천히 둘러봤다. 사방이 수정으로 되어있는 좁은 방 안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무니가 칼기에게 물었다.

"어제 네가 그랬지? 그냥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 거냐고 말이야."

무니의 '그래' 라는 대답이 하품과 함께 흘러나왔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라고 말이야."

"그랬지. 하지만 내가 자기 전에 생각해보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너하고 단 둘이 여기서 영원히 '있고' 싶지는 않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몸은 나가는 방법을 좀 찾아 봐야겠어. 성공하든 실패하든 말이야."

"하하하. 좀 섬세한데? 어젯밤 대화로 좀 친해진 줄 알았더니"

칼기는 계속 바깥을 내다보며 말했다. 무니는 짐짓 서운한 말투의 그에게 대꾸하는 대신, 칼기가 올라가 있는 탁자 위로 자신도 올라갔다.

"야. 넌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냐?"

칼기는 무니 쪽은 여전히 쳐다보지 않고 "뽀" 이라고 대답했다.

"누가 뽀인 줄 모르고 묻는 줄 알아? 어딜 보는 건데!"

대답 대신 칼기는 무니의 목을 끌어당겨 어떤 방향을 바라보게 했다.

"자기를 잘 봐. 뭐가 좀 보여?"

무니는 칼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뚫어져라 쳐다봤지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늘뿐이었다.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 아직은 아무 것도 안 보이지. 그럼, 냄새를 한번 맡아봐. 무슨 향기 같은 게 나지 않아?"

무니는 칼기의 말을 듣고 쿵쿵거리며 냄새를 맡아 보았다.

"별 다른 냄새는 안 나는데? 흠... 이 시원한 냄새는 어제도 맡았던 거고"

"그렇지? 뭔가 시원한 느낌의 냄새가 나지? 강가나 바닷가 같은 데서 나는 냄새 말이야."

"응. 그런데 이 냄새가 뭐? 여기가 바다 원데 당연한 거 아니야?"

칼기는 한 자세를 너무 오래 취했다는 듯 목을 움직이다가 무니의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네겐 제게 바다로 보였구나. 하긴 크긴 되게 크니까. 아무튼 저건 연못이라고 친구, 일단 파도가 없잖아? 간혹 스스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말이야. 야! 그리고 보니 네가 온 이후부터는 계속 저렇게 연못이 파도치듯 움직였던 거 같다. 그러니 바다라고 착각을 하지. 하여간 저건 연못이고, 이름은 '괴로움이 없는 연못' 이래. 무슨 뜻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저 물을 마시면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여기 누가 저 물을 마셔볼 수 있겠어? 신이나 마시면 모를까."

"승가건강비법 신비의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기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교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공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년이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전화번호: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에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ikukak.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행복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